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코로나19, 중국】 중국 전역에 '제로-코로나 (Zero-COVID)' 정책 반대 시위 확산

【원자재법, EU·한국】 韓 기업들, EU에 내년초 초안 공개 예정인 '원자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원유, EU·러시아】 러 원유 가격 상한제, 폴란드 반대로 EU 막판 합의 불발

【반도체, 미국·중국】 美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이후 中 반도체 생산장비 수입 27% 급감

【첨단제품, 중국】 첨단기술 분야 중국 영향력 ↑, 전기차·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약진

【니켈, 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WTO의 '니켈 수출 금지 협정 위반 판단'에 대해 항소 전망

【국제관계, 독일·중국】 독일, 對中 강경노선으로 선화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인플레이션,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 40년만의 최대 상승률 기록



GVC 뉴스 더하기

- ① 유럽 제조업 위기 확산, 러시아 원유 금수 시행 앞두고 우려
- ②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중 공급망 관련 사항



GVC 기초상식

미국 의회 입법 절차 2편



GVC 돌보기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수단



GVC 전문가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 도입 검토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더 찾아보기

의료기기 제조업계까지 미친 공급망 위기



GVC 소식통

- ① 공급망 관련 설명회 안내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코로나19, 중국】 중국 전역에 '제로-코로나(Zero-COVID)' 정책 반대 시위 확산

- 지난 주말, 3년 가까이 계속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극에 달해 중국 전역 (베이징·상하이·우한·광저우 등)에서 봉쇄 정책 반대 및 시진핑 국가주석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발생
 - 봉쇄 반대에서 시작된 시위는 반정부 시위로 번져 톈안먼 사태 이후 최대 전국 시위로 여겨지고 있으며 진압 과정에서 中 경찰이 상하이 현장을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를 폭행·연행하는 등 양국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
-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가 코로나 봉쇄 탓에 제때 진화되지 못하여 발생한 참사(10명 사망, 9명 부상)가 중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었음
 - 방역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봉쇄하기 위해 가져다 놓았던 설치물들이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는 주장 제기
 - 중국의 봉쇄정책 반대 시위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된 또 다른 이유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카타르 월드컵 축제 현장의 모습이 중국인들의 여론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음
- 애플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는 봉쇄 정책에 따른 노동자 대거 탈출에 이어 근로환경 관련 대규모 시위까지 발생. 그러나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
 - 中 허난성 정저우 폭스콘 공장(전 세계 아이폰의 약 70% 생산)의 봉쇄 정책에 반발하여 노동자들이 대거 탈출. 애플의 주력 제품인 아이폰14는 600만대 감산 결정을 내렸으며(9000만 → 8400만대/1년) 최근에는 임금 지급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져 정상 가동이 더욱 어려워짐
 - 지난 주말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제로-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80세 이상 고위험그룹의 약 66%만 백신 2차접종을 완료했기에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지방 공무원의 과도한 일률적 정책 조치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겠다고 20가지 조치를 발표함 [11.30 CNN]
 - 11.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고조된 시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폭스콘 공장 조업 정상화를 위해 중국 정부는 정저우시 도시 봉쇄 조치를 해제
- 美뉴욕타임즈는 지난 28일,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발생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반대 시위는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고 전세계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함
 - 알리안츠社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수석경제고문 또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시위는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것"이라 언급

출처: 중앙일보(22.11.26), 아시아경제(22.11.3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원자재법, EU·한국】 韓 기업들, EU에 내년초 초안 공개 예정인 '원자재법'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 입법과 관련하여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자유무역 원칙을 기반으로 법안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EU집행위에 "CRMA는 EU의 근본적인 무역규칙인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position paper) 제출(11.25)
 - 특히, 자국기업 우대에서 촉발되는 보호무역주의 재림을 우려하며, CRMA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CRMA가 이미 현존하는 규제(EU의 배터리규제 등)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일관성도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힘
- EU는 지난 9월 중요 광물 원자재 공급망 구축을 위해 CRMA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11.25일까지 수렴하였으며 내년 초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년까지 중요 광물 원자재 수요가 5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핵심 정책과제로 CRMA 추진을 제시한 만큼 對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는 관측 우세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상뉴스(22.11.26),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등

■ 【원유, EU·러시아】 러 원유 가격 상한제, 폴란드 반대로 EU 막판 합의 불발

- 11.28일 로이터통신은 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대한 막판 합의가 불발됐다고 보도. 폴란드가 러시아의 침공 자금 조달 능력을 줄이기 위해 G7의 제한 가격보다 더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의에 실패
 - 폴란드 등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이미 배럴당 63.5달러 이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기에 G7이 제시한 상한가 65~70달러가 러시아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배럴당 30달러 상한선을 촉구해 왔으나, 몰타, 키프로스, 그리스 등은 상한가가 너무 낮을 경우 대형 해운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 12.5일로 예정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는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 후 G7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EU는 러시아 석유 판매에 대한 보험중개, 자금조달 등을 전면 금지할 예정으로 알려짐. 미국은 EU의 금지령으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

출처: 로이터(22.11.29), WSJ(22.11.28)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미국·중국】 美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이후 中의 반도체 생산장비 수입 27% 급감

- 미국의 對中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제재 이후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장비 수입 규모가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규모인 24억 달러(약 3조 2,460억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7% 급감
 -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산시키기 위해 미국은 10.7일 對中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행동까지 제한하는 포괄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미국,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것에 비해 ASML(세계적인 노광장비 생산업체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풍 10nm 이하 초미세 공정을 위한 EUV 장비를 생산)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량은 두 배 증가
 - ASML은 네덜란드 정부의 불허로 독점 생산 중인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전 모델인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는 중국에 지속 공급 중
- 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은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네덜란드와 일본에 수출통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네덜란드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
 - 리제 슈라인마허 네덜란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11.22일 국회에서 “우리 자신의 이익, 즉 국가 안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의 요구에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됨
-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 규모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통제가 첨단장비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對中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기는 불가할 전망

출처: 연합뉴스(22.11.23), 조세일보(22.11.23), 한국경제(22.11.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첨단제품, 중국】 첨단기술 분야 중국 영향력 ↑, 전기차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약진

- 11.23일 일본경제신문(닛케이)이 발표한 ‘21년 주요 상품·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활동에 중요한 56개 제품 및 소재 상위 5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미국(18개), 중국(15개), 일본(7개), 한국(5개) 순으로 나타남

- (미국) 전기차, 반도체 제조장치, 바이오의약품 등 18개의 품목에서 선두를 기록하며 1위 유지
 - (중국) 배터리, 태양광 패널, 대형 액정패널, 조선 등 15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미국의 선두 품목 수와 큰 차이 없는 2위
 - (일본) 이미지(CMOS) 센서, 휴대용 리튬이온전지, 디지털 카메라 등 7개 품목에서 선두를 기록해 3위 차지
 - (한국) '19년도 7개 품목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일본과 공동 3위 기록. '20년 대형 액정패널(LG디스플레이)과 조선(현대중공업)에서 각각 중국 BOE와 CSSC에 1위를 내주며 하락. 올해 점유율 1위를 차지한 5개 품목(D램, 낸드플래시, 스마트폰, 평면TV, OLED) 모두 삼성전자 제품
- 조사 품목 56개 중 중국기업이 상위 5개사에 포함된 품목은 32개이며 이 중 점유율이 확대된 품목은 21개로 집계. 특히 전기차 관련 배터리 업체 CATL의 점유율은 38.6%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하여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BYD와 합칠 경우 46.3%를 점유한 반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은 4.1%p 하락한 28.4% 기록(LG에너지솔루션 18.6%, SK온 6.2% 등)
- 이에 닛케이는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중국 BYD(6.8%)는 전기차 부문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5.6%)을 제치고 점유율 4위 차지.
 -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절연제 시장에서도 '19년도 일본 아사히카세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중국 상하이 에너지가 28.7%를 점유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키우는 중
- 디스플레이 부문 대형·중소형 LCD(액정표시장치) 모두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은 OLED 패널 시장에서도 3.7%p 증가세를 보이며 한국(4.2%p 감소)을 추격. 이에 한국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급성장한 중국과 '원조 강자'였던 일본에 밀리면서 시장 확장에 고전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

출처: 일본경제신문(22.11.22), 아시아경제(22.11.23), 뉴시스(22.11.24) 등 언론보도 KOTRA 일본지역본부 종합

■ **【니켈, 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WTO의 '니켈 수출금지 협정 위반 판단'에 대해 항소 전망**

- 11.23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니켈·철광석·크롬·석탄의 국내 제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WTO(세계무역기구)가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힘
 - '19년 인도네시아의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주요 광물의 원광 형태 수출 금지' 규제에 대해 EU는 원자재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
 - WTO는 '21.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한 뒤 분쟁해결 절차 시작.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WTO에서 보내온 패널 보고서에 해당 수출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힘
- 아리핀 장관은 “아직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이 남아있으며, DSB가 보고서대로 판단하더라도 항소의 기회가 있다. 항소 이후에도 최종 판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지금의 규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
- 앞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직접 제련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올려 수출액도 수십 배 커졌다”며 WTO 소송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를 풀 생각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23) 등 언론보도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종합

■ **【국제관계, 독일·중국】 독일, 對中 강경노선으로 선회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 독일은 그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에 대해 가장 온건하게 대응해 왔음
- 그러나 11.1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新 對중국 전략'에서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시장 권력을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고 신장·티벳 지역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음을 적시하여 對中 강경 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시사됨
- 독일은 새로운 對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對中 경제 의존도 완화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으며, EU-대만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방침임
 - [교역의존도 완화] 독일은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하여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 [교역정보 공개] 중국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중국 관련 사업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중국 관련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함. 또한, 중국 소재 독일기업의 중국 투자와 관련된 안보위험을 점검하고, 필요시 투자중단 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원자재 구매] 중국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위해 희토류 등 특정 원자재 구매력 강화를 위해 EU 구매자 카르텔 형성 제안
 -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보증을 기업당 최대 30억 유로로 제한하고, 공급망내 환경 훼손 및 노동권 침해 방지에 관한 엄격한 요건 부과
 - [대만 관계 확대]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 및 영향평가의 신속한 수행을 요구한 유럽의회 의견에 지지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대만과의 관계 강화 시사
-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독일 외교부의 문건이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1.26)

■ **【인플레이션, 일본】 도쿄 소비자 물가, 40년만의 최대 상승률 기록**

- '22.11월 도쿄 소비자 물가는 엔화 가치 하락,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40년 7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 일본 총무성이 11.25일 발표한 도쿄 지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속보치, '20년=100 기준)는 변동이 큰 신선 식품을 제외한 종합 지수 기준으로 103.6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신선식품 포함시 3.8% 상승)
 - 이는 1989년 일본이 소비세를 도입한 직후 물가상승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1982년 4월 기록된 4.2%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후 40년 7개월만의 최대 상승폭
- 식료품 전체 기준으로는 7.0% 상승하였고, 특히 식용유는 40.4%, 국산(일본산) 치즈는 35.2%, 조리식품은 6.4%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에너지 관련 품목은 24.4%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유지
 - 전기세가 26%, 도시가스비가 33% 오른 가운데 휘발유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로 △0.8%로 나타남
- 도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앞서 발표되어 전국 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어 일본 전국 물가상승률도 3%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22.11.28)



GVC 뉴스더하기 ① : 유럽 제조업 위기 확산, 러 원유 금수 시행 앞두고 우려

◆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비료,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 제조업계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EU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생산 및 에너지 소비 감소

- EU 제조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EU 가스 도매가격은 미국·아시아의 7배 수준)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공장가동 중단·이전 등 확산 → EU 경제·산업 전반의 활동 위축
 - 독일은 산업 에너지 수요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4를 차지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이 주를 이루는데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22.5월부터 에너지 집약산업의 생산량이 전체 산업 생산량 평균 이하로 하락
- '22.1~10월 EU 천연가스 수요는 '19~20년 평균대비 10% 감소. 대부분의 감소는 산업계에서 발생
 - 산업 에너지소비 감소는 루마니아(△64%), 핀란드(△48%), 헝가리(△46%) 순이며, 그 외 독일(△19%), 프랑스(△12%) 등
-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이라는 긍정적 평가의 이면에 에너지 가격을 견디지 못한 EU 기업들의 생산량 감축·생산기지 이전*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
 - * '22.9월 독일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8%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생산기지 脫EU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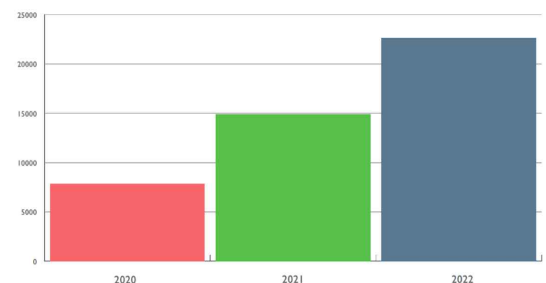
■ 주요 에너지 집약 산업 동향

- (비료) 비료 생산 감축 → 수확량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하고 세계 식량 위기 악화

- 질소·암모니아 등 비료 성분 생산시 막대한 양의 천연 가스가 필요해 전체 생산 비용의 80% 차지
- 폴란드 Grupa Azoty, 리투아니아 Achema, 미국 CF Industries 유럽 생산기지 등 생산 감축·중단하는 등 '22.9월 기준 유럽 암모니아 생산 설비의 33%만 가동 [英시장조사기관 CRU Group]
- '22.11월, UN 중계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식량·비료 공급 허용을 위해 러시아와 회담 예정

〈'20~22년 G20 비료 수입 도매 가격〉

단위: 백만달러



자료: 농업무역정책연구소(ATP)

- (화학)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 → 생산 감축 및 脫EU 추진

- 세계 최대 화학기업 BASF社는 러-우 사태로 가스가격 상승 및 나프타 공급차질 이중고 상황으로, 유럽내 가스 구매비용이 전년 대비 22억 유로 증가함에 따라, '22.9월 유럽 생산시설 축소 및 영구 감축 계획 발표

■ 러 석유 수입제재 임박, 제2차 에너지 위기 도래 가능성 제기

- 對러시아 원유·경유 수입 제재를 앞두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경고

- EU는 '22.12월 러 원유 해상수입 제한을 시작으로 '23.2월까지 러産 경유(디젤), 정유제품 금수조치 시행
- 코로나-19, 러-우 사태,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 역제로 경유 가격은 지속 상승해 온 상황
 - * '22.10월, 경유·원유 가격 전년대비 각각 70%, 425% 상승 (IEA)
- IEA는 EU 에너지 위기, 中 경제 약세, 美 달러 강세 상황 속에서 경유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엄청난 부담(weighing heavily)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 '23년 에너지 위기 심화 대비 EU 회원국 재고 비축 움직임 확대

- 제재 발효 후 非러시아산 경유 수급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경제 및 원유 수요에 압박이 가중될 전망
- 금수조치 본격화 이후 유럽은 원유 110만 b/d(Barrels per Day), 경유·나프타·중유(fuel oil) 100만 b/d 규모의 대체 공급망 확보 필요
- '22.11.1~12일까지 암스테르담-로테르담-앤트워프(ARA) 지역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경유 적재량은 전월 대비 126% 증가 [英시장조사기업 Vortexa]

**GVC 뉴스더하기 ② :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중 공급망 관련사항**

◆ 지난 11.23(수) 정부는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①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 ②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중 공급망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개요

- (목표) △주력·전략시장별 맞춤형 수출확대 전략 추진, △소부처의 수출지원 역량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26년 수출 5대 강국 달성
- (주력시장) 아세안·미국·중국 3대 주력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57% 차지
- (전략시장) 중동·중남미·EU를 청하며 고유가에 따른 구매력 상승(중동),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중남미), 친환경 이슈 부각(EU) 등 기회·위기 요인이 공존하여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한 국가

■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방안 중 공급망 관련 내용**① 3대 주력시장(아세안·미국·중국) 수출 확대 전략**

- (아세안) 베트남 중심으로 이뤄지던 무역·투자를 자원 부국인 인니, 태국 등으로 확장하여 G2G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및 기업들의 광물·소재 공급망 구축 활동 지원
 - (인니) 니켈·주석·보크사이트, (필리핀) 니켈·코발트, (미얀마·태국·베트남) 희토류 등
- (미국) 인프라 투자법(21.11월, 1.2조불), 인플레이션 감축법(22.8월, 3,690억불) 등을 국내기업 해외진출 기회로 활용하여 사업기회 선제 발굴, 美조달특혜제도(Buy America) 대응 법률상담 등 진출 지원
 - 또한 IPEF, IRA 전기차,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 대응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resiliency) 증진 및 협력 강화
- (중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비축·수입국 다변화 지원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및 既진출 기업 중 해외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 수요가 있을 경우 제3국 이전* 또는 국내복귀를 위한 핀셋 지원**
 - * 제3국 진출수요 조사 후 1:1 상담, 현지 투자정보 및 성공사례 공유, 제3국 진출 세미나 등 지원
 - **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유망기업 30개社 선정(22.2월) → 現 3개社 유치 완료, 1개 진행중

② 3대 전략시장 수출 확대 전략

- (중동) Saudi Vision 2030 중점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관련 에너지·인프라 분야 사업진출 지원* 및 사우디의 에너지 다변화(탈석유) 및 스마트농업·제조업 육성 확대 정책에 맞춰 우리기업 진출 지원 강화
 - * 발주처·정부 인사 방한 초청 등 G2G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고위급 면담 등 추진
- (중남미)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등 중남미 주요국과 신규 FTA 체결 △칠레 등과 FTA 고도화 추진 △칠레·아르헨티나(리툼), 브라질(니켈), 멕시코(무수불산) 등 주요 자원부국*과 광물협력 강화
 - * 리툼의 경우 칠레는 세계 매장량 1위 생산량 2위, 아르헨티나는 세계 매장량 3위, 생산량 4위
- (EU) 폴란드와의 원전협력 프로젝트(22.10월 MOU) 계기 △유럽 원전 시장으로의 진출과 함께 원전 기저재 수출지원 확대,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유럽 주요국 방산 수요증가에 대응한 지원사업 추진
 - (원전) 원전 GP, 현지 지사화 등을 통한 핀포인트 지원, 금융·마케팅·인증 등 지원 강화
 - (방산) 대형무기·방탄복 등 방산전시회(23.9월, 폴란드) 한국관 참여, 국내 초청 상담회



GVC 기초상식 : 미국의 입법 절차 2편 <美 상원 입법 및 양원의 이견조정> -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CHIPS 및 IRA의 법제화와 미국 입법절차」요약

◆ 양원제인 미국에서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에서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이후 상·하원간 이견을 조정하여 양원 전체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상원의 입법 절차와 상·하원간 의견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자

<미국 입법절차 시리즈>

37호: 하원 입법 과정

38호: 상원 입법과

양원의 이견 조정

1. 상원 입법과정

-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법안 발의 및 상임위 심사 과정은 하원과 동일
- **[본회의 심의]** 상원 입법과정은 수정안 제출 횟수, 토론 시간 등의 제약이 적어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장일치동의(Unanimous consent)와 토론종결제도(Cloture) 등을 제도화하고 있음
 - **(만장일치동의)** 상원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안의 신속한 심의를 위해 **토론시간 및 수정안 제출권에 대한 권리를 유보**하는 내용 포함
 - * 만장일치동의를 얻지 못하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fillbuster)를 통해 시간이나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이 가능해 이를 통해 입법이 무기한 지연될 수 있음
 - **(토론종결제도)** 상원이 입법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제도로, 토론종결제도가 결의되면 발언시간이 각 1시간씩만 허용되고 30시간 이내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해야 함
 - * 토론종결제도의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16인 이상의 상원의원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본회의에서 총 60표의 찬성을 얻어야 함
 - (표결) 상원 본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표결이 진행되며 과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

2. 상·하원 이견 조정

- **법안이 대통령에게 이송되기 위해서는 ▲양원 중 어느 한 곳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따르거나, ▲양원이 법안의 모든 조문에 동의할 때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ping-pong amendment)하는 방법이 있음**
- 만약 양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원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협의위원회(The Conference Committee)**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 과정**을 거침
 - 법안이 양원 위원회에 회부되면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의장이 공식적으로 협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는 공식·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양원 모두 과반 이상이 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목표로 협의 진행
 - 양원 협의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가 합의에 이르면 위원들은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양원에 보고하게 되며 동 보고서가 상·하원에서 모두 의결되면 대통령에게 이송

3. 대통령 권한

- **美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명) 법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명하면 법안은 법률로 제정됨
 - (거부권 행사) 대통령은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으나(법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만약 **美 의회 양원의 2/3 이상이 다시 찬성할 경우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

GVC 돋보기 :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수단

◆ 최근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 및 수출거래 제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사용을 촉진하고자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RE100제도를 마련하였는바, **한국형 RE100 제도와 주요 이행 수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 글로벌 RE100

- '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가 주도
- 연간 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공식적인 공약 제시**가 요구되며 '22.11월 기준 약 388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

■ 한국형 RE100(K-RE100)

- (배경) 국내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RE100과는 별개로 한국형 RE100 제도 마련**
- (개념) 국내 전기소비자(기업)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행하는 제도로 '21년부터 시행
- (대상)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기업과 같이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전기소비자도 참여 가능
- (목표) '50년 100% 이행 목표 설정을 권고'하며 중간목표는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 중간목표(30년 60%, '40년 90%)를 설정해야 하는 글로벌 RE100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행 수단) **직접 조달**(자체 건설, 지분 투자)과 **재생에너지 구매**(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직접 혹은 제3자 PPA) 방식으로 구분
- (이행 절차)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검증 및 인증**
 - (신청) 전기소비자(기업)가 RE100 이행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구매 또는 사용한 실적을 한국 에너지공단에 보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증명을 신청
 - (발급)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실적 자료 검토 후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 (현황) '22.5월 기준,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수는 115개**이며, 이행 수단별로는 △**녹색프리미엄 74%**, △**인증서 구매 20%**, △**자체 건설 10%** 순으로 **녹색프리미엄이 주요 수단**

〈한국형 RE-100 제도〉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형 RE100 추진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부산형 RE100 포럼 발표 자료(2022.0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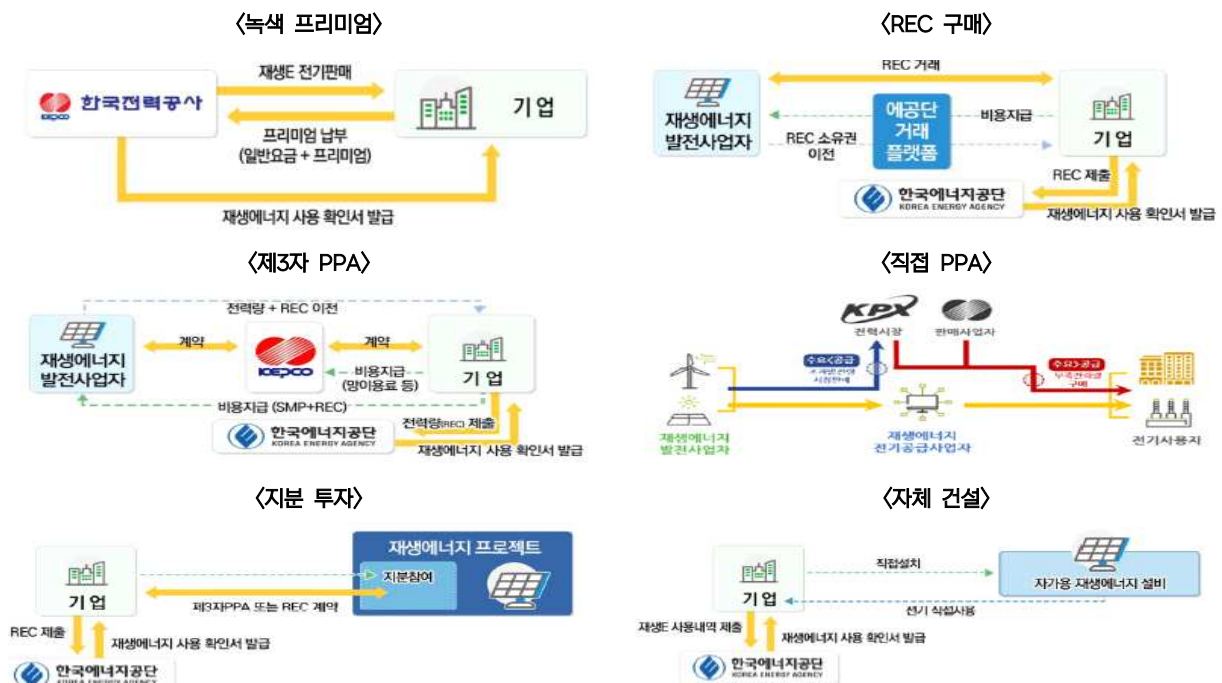
■ K-RE100 이행 방안

① 직접 조달

- (지분투자)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 체결
- (자체 건설)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

② 재생에너지 구매

- (녹색 프리미엄) 전기소비자(기업 등)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
 - 한전의 녹색프리미엄 입찰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가 가능하며, 녹색 프리미엄 판매를 통해 얻은 재원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재투자에 활용
 - '22년 1차 입찰 기준 13.561TWh에 대해 하한 가격 10원/kWh로 설정하고 입찰한 결과, 전체 물량의 약 34%인 4.67TWh가 낙찰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10.9원/kWh로 설정
 - 기업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행 수단이라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물량 수급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존재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 자체 건설과 PPA 비해 기여도가 낮은 편
- (REC 구매) 전기소비자가 RPS 의무 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에너지공단의 K-RE100용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
 - 신에너지·폐기물 등 비재생에너지의 REC는 제외, 현물거래는 수량 단위로 하고 계약거래는 단기·장기로 거래
- (제3자 PPA) 한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해 전력 구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전기소비자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
- (직접 PPA) 한전의 중개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직접 거래
 - 녹색프리미엄을 제외한 인증서 구매, 제3자·직접 PPA, 자체건설(자발전), 지분투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시사점) 한국형 RE100은 제도 측면에서는 고도화된 시장으로 평가되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보다 다양한 이행 수단을 확대해 나갈 필요



GVC 전문가 :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 우리나라 도입 검토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

◆ 배터리 스왑핑(swapping)이란 전기차 배터리 공급방식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를 이미 충전해 놓은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과 이에 수반되는 일련의 시스템 운영을 통칭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자본, 기술개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의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 배터리 공급 방식의 하나인 배터리 스왑핑에 대해 알아보자.

■ 도입 배경

-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빠른 충전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상태로 배터리 스왑핑 산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21년말 기준, 공공 충전기 1대당 전기차는 중국 6.6대, 유럽 13대, 북미 20.7대, 일본 11.3대, 한국 4.4대로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 설비가 부족한 실정
- 일반적으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방식이 선호되나 현재 기술력으로는 많은 양의 전력을 한번에 전달할 경우 배터리 발열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한계가 존재함
- 반면 배터리 스왑핑 방식은 집중형 충전소에서 대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보관하고 배터리 교환소로 운송한 후 개별 차량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급속충전 방식 대비 배터리 스왑핑 방식의 장·단점 〉

장 점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시간이 2~3분에 불과하여 시간 단축 • 전기차가 늘어난 만큼 충전소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공간 활용도가 높음 • 온·습도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배터리가 충전되어 배터리 손상이 적고 수명이 늘어남 • 전력 사용이 적은 야간에 완속 충전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폭발 위험이 낮음 • 급속충전에 비해 고압전력 및 축전 인프라, 전력용량 확장 부담이 적어 전력망 활용 효율성이 높음 • 여러 차종 배터리 호환이 가능하며, 교체시스템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교환소 운영서비스 효율을 높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식 배터리 팩 규격 표준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팩 사이즈는 배터리 및 완성차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표준화를 위해서는 기업간 합의 및 기업의 전략적 투자 결정 필요 • 초기 인프라 구축에 큰 비용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교체를 위한 기증기, 승강기, 교체 로봇 등 자동화 인프라 필요

■ 중국 배터리 스왑핑 시장 현황

- 중국은 기존의 충전방식이 충전 속도, 안전성, 보급 속도 등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배터리 스왑핑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 추진
-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1년 중국의 배터리 스왑핑 시장은 45억 위안으로 성장했고 배터리 교환소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1,406개소에 달함
- '25년에는 배터리 교환소 3만개 이상, 1천억 위안 이상의 시장이 열릴 전망

〈중국의 배터리 스왑핑 산업 육성 정책 및 주요 내용〉

단계	연도	정책 및 이슈	주요 내용
맹아	2006~2015	• 〈12차('06~'10), 13차('11~'15) 5개년 계획〉	•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 낮은 충전속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 문제점 대한 해결책으로 '배터리 교체식 방식'을 급속 충전방식과 동시에 육성
		•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발전 계획〉	• 지역에 따라 완속 충전, 공공 급속 충전, 교체 시설을 건설해야 함
초기	2015	• 〈전력 체제 개혁〉	• 스왑핑 모델의 시장 형성 가시화
준비	2019	• 〈녹색산업지도목록〉	• 배터리 스왑핑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지정
		• 〈핵심 소비재의 갱신과 업그레이드 촉진 및 원활한 자원 재활용 계획〉	• △배터리 구독제 촉진 △충전식교체식 결합 차량 개발 △표준화 및 배터리 비용절감 노력 본격화
		•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	• 배터리 교체 기술을 발전장려 사업에 포함
발전	2020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책 통지〉	•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터리 교체식 차량 보급 확대
고도화	2021~2022	• 〈신에너지 차량용 배터리 교체식 적용 시범사업 개시에 대한 통지〉	• 배터리 교체 시범 프로젝트 개시
		• 〈GB/T40032-2021 전기차 배터리 교체 안전 요구〉	• 배터리 교체식 상품 및 기술의 표준화
		• 〈자동차 표준화 작업 요점〉	• 충전식, 교체식 표준 구축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스템, 교체 플랫폼, 교체식 배터리팩 표준 제정

자료 : iResearch 「中国新能源汽车换电市场研究报告」(2022.5) 및 기타 언론자료를 종합해 저자 작성

■ 배터리 스왑핑 국내 도입시 장단점

- 국가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전력망의 효율적 관리,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및 △배터리 순환경제 구축 등에 기여 가능
- 소비자 입장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배터리 교체로 시간 절약 및 안전한 배터리 교체 가능
- 다만, 배터리 스왑핑은 배터리 규격 및 결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여 해당 기업의 전략적 결정이 있어야 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해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음

■ 정책 제언

- 급속 충전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 속에서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은 배터리 공급방식의 다양화 중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며, 도입을 위해서는 4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할 필요

① 스왑핑 인프라 구축

② 비즈니스 모델 정립

③ 규격 표준화

④ 얼라이언스 구축

- ① 배터리 교체식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기술 인력 양성, 자동화 설비 구축 등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 ② 배터리 스왑핑 참여 업체간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시스템 구축
- ③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간 협력을 통해 배터리 교체식 전기차 설계 및 배터리 규격 표준화 확립
- ④ 완성차 기업,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교환소 운영업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 사업 구체화



더 찾아보기 : 의료기기 제조업체까지 미친 공급망 위기

◆ 최근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뿐 아니라 의료기기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공급망 위기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의료기기 제조업 공급망 병목현상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뤄졌던 무릎 및 고관절 등 의료수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으로 더 비싸진 장비와 부품 등을 이유로 관련 업계의 구매 및 생산 속도가 늦어지는 상황
 - 의료기기 업계 전반에 걸쳐 장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플라스틱 및 반도체, 금속, 수지 등이 모두 부족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Abbott Laboratories]
 -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료기기 기업들이 반도체 조달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조달 우선권을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등함 [Stryker社 CEO Kevin Lobo]
- 의료 시술량은 팬데믹 초기 최악의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고, 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최근 실적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공급망 분절로 기업들의 시장 대응 능력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
 - '22년 의료기기 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4,987억 달러 전망. '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8.1% 상승, '20년의 경우 팬데믹으로 5.7% 감소했던 상황임 [컨설팅회사인 Frost & Sullivan]
 - 업계에서는 타 산업군 대비 의료산업계의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가 부족했다고 분석. 업계 전반의 높은 이윤으로 효율적 공급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왔기 때문임

■ 업계 주요 기업 동향

Medtron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장비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알려진 Medtronic社は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 마이너스 환율 등을 이유로 '22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 직후 주가는 5.3% 급락
Becton Dickin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상위 10대 의료기술 회사 중 하나인 BD社は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 및 운송비용 증가를 포함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 - CEO 토마스 폴렌은 실적 발표에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했다"고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TF를 구성하고 내부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설정 - CFO는 "원자재에서 큰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힘
Boston Scientif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 및 혈관 장치의 판매 증가로 '22.3분기 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31억 7천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순 이익은 환율과 비용 증가로 55% 감소한 1억 8,800만 달러 기록
Stryk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 장비와 관절 교체 부품 생산 기업인 Stryker社は 최근 가격 상승 문제로 인해 특정 자재 구매를 연기, 일부 반도체 등은 신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했다고 밝힘. •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부품 조달이 중단되어 특정 제품 배송이 지연되고, 자재가격 상승은 당사 생산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반영 • 공급망 충격으로 '22.3분기 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p 하락한 62.1% 기록, '22년 이익률은 전년 대비 2.5%p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영향이 '23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
Holog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테스트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22.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 순이익은 무려 64% 급감. 반도체 칩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 사업부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
Abbott Laborat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 대표 제품인 Libre 혈당 모니터링 장치를 생산하기 위한 특정 구형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 신형 시장에서의 매출에 타격을 입었음 • 의료기기 매출이 부진했으나 코로나19 진단기기 매출이 예상보다 높아 연간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



■ 시사점

-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9조1,341억원으로 국내 생산과 수입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료기기 1,960종 중 국내 생산이 전혀 없는 제품이 725개에 달하는 만큼 의료기기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GVC 소식통 ① : 공급망 관련 설명회 안내

■ 중소·중견기업 RE100 대응 방안 설명회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안정성 확보를 위해 RE100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

- 일시/장소 : 12월 6일(화) 14:00~16:00 / 온라인(ZOOM)
- 세부 프로그램

시간	주제	연사
14:00~14:30	글로벌 RE100과 한국형 RE100 추진 현황과 방향	박강훈 팀장 (한국에너지공단)
14:30~15:30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사례	진우삼 이사 (기업재생에너지재단)
15:00~15:30	사례를 통해 본 중소·중견기업 RE100 대응 방안	이상민 전무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15:30~16:00	Q&A	박강훈 팀장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기한 : 12월 5일(월) 限
- 참가신청 : [RE100 설명회\(클릭\)](#) 내용 검토 후 하단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 참고사항 : 신청자 대상 12월 5일(월)까지 ZOOM 링크 송부 예정
- 문의처 : KOTRA 유망기업팀 이예림 대리 ☎ 02-3460-7435

■ 2023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유관기관 설명회

- 우리 스마트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6개 유관기관들의 2023년 지원 사업 소개

- 일시/장소 : 12월 14일(수) 14:00 / KOTRA 국제회의장(B1F)
- 세부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		
1부	14:05~14:10	인사말	혁신성장본부장
	14:10~14:20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14:20~14:50	스마트팜 글로벌 기술동향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14:50~15:20	스마트팜 글로벌 시장동향	EC21
	15:20~15:40	2022년 스마트팜 해외진출 성공사례	KOTRA
15:40~15:50	휴식		
2부	15:50~17:20 (각 15분)	기관별 2023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소개	KOTRA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17:20~17:30	Q&A		

* (참가기업 대상) 2023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책자 및 2023년 스마트팜 해외 진출전략 보고서 증정

- 신청기한 : 12월 12일(월) 限
- 참가신청 : [2023 스마트팜 지원사업 유관기관 설명회\(클릭\)](#)에서 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 KOTRA ICT융복합팀 권현희 사원 ☎ 02-3460-7468 / smartfarm@kotra.or.kr

[KOTRA]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도쿄(일본)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 지속 → 수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노선	출발예정일(매주)	예약마감일	서류/화물(입고)마감
인천(ICN) → 독일(FRA)	수요일	화요일 12:00	화요일 16:00 이전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6:00 이전
인천(ICN) → 도쿄(NRT)	화요일	월요일 12:00	월요일 15:00 이전
	금요일	목요일 12:00	목요일 15: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전용 스페이스: 편당 3톤 내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해상운송]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박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부산항 / 도착: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뭄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세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삼성SDS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물류 지원사업

기업명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해상운송]														
 (포스코)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제품) or 포워드 가능품목: 코일·판재류·선재 등 (이외 품목은 추가 확인 필요) 출항지: 포항항/광양항 → 도착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 (내륙운임은 수출기업 부담)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 가입 후 합적 신청 사업안내 (클릭)												
	[자동차운반선(RORO) 활용 중소기업 화물 합적·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Breakbulk 화물 수출 중소기업 or 포워드 출항지: 광양항/마산항/평택항 → 도착지: 미주·유럽·남미 주요 항만 ※ 운송신청 화물에 대한 현대글로벌비스의 추가 확인 후 합적·운송 실시 ※ 신청 화물에 대한 선적 확정 시, 출항·선적일정 개별 공지 	신청서 작성/제출 (logistics01@kita.or.kr) 사업안내 (클릭)												
 (고려해운)	[인트라 아시아 중소화주 수출선복 제공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선적 희망일로부터 22일 이상 여유있는 수출 중소기업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FCL 컨테이너화물 (LCL 불가) 출항지: 부산항 → 도착지: 인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사업안내에서 희망 국가 클릭 후 사업신청 사업안내 (클릭)												
[항공운송]														
 (대한항공)	[중소 수출기업 전용 스페이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수출 중소제조업체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일반 항공화물 (특수화물 불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노선</th> <th>출항일</th> <th>예약 마감</th> <th>서류/화물 (입고)마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인천 → 로스앤젤레스</td> <td>수요일</td> <td>월요일 12:00</td> <td>화요일 12:00 이전</td> </tr> <tr> <td>일요일</td> <td>목요일 12:00</td> <td>금요일 12:00 이전</td> </tr> </tbody> </table>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노선	출항일	예약 마감	서류/화물 (입고)마감											
인천 → 로스앤젤레스	수요일	월요일 12:00	화요일 12:00 이전											
	일요일	목요일 12:00	금요일 12:00 이전											
[복합운송]														
 (LX판토스)	[유럽·러시아항 해상·철도 복합운송 선복지원 및 운임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2월 유럽·러시아항 추가 운임 할인 지원대상: 국내 수출기업(실화주) (포워드 신청불가) 가능품목: 20피트·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LCL 불가, TCR은 40ft만 가능) 	(운임할인 및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 (10~12월 추가 지원사업) 사업안내 (클릭)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해상+철도 복합운송</th> <th>내륙운송</th> </tr> <tr> <th>노선</th> <th>출발지</th> <th>도착지</th> <th>최종도착지</th> </tr> </thead> <tbody> <tr> <td>TCR</td> <td>인천, 평택</td> <td rowspan="2">폴란드 말라세비치</td> <td rowspan="2">유럽 전역</td> </tr> <tr> <td>TSR</td> <td>부산</td> </tr> </tbody> </table>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최종도착지											
TCR	인천, 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유럽 전역											
TSR	부산													
[물류 보관]														
 (칼트로시스)	[부산신항 물류센터 컨테이너 화물 보관장소 제공 및 요금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물류센터 상하차 및 보관, 물류센터-CY터미널 셔틀 할인가 제공 가능품목: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 (특수 컨테이너 문의 필요) ※ 수출업체→물류센터 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드/운송사 통해 직접수배) 	신청서 작성/제출 (hjo117@kita.net) 사업안내 (클릭)												
 (포스코플로우)	“신규” [포스코플로우 유럽 물류센터(코퍼·앤티워프)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자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내용: 유럽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기업이 포스코플로우 물류인프라(해상운송·통관·하역·보관·내륙운송 등)를 공동 이용 사업기간: 2022.11.28.~2023.상반기 (잠정, 변동 가능) 지원대상: 국내 모든 수출기업 (포워드 포함) 	11.25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제출 사업안내 (클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 / 5754 (월-금 09:00-18:00)
 ☒ logistics01@kita.or.kr / hjo117@kita.net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1. 30. 수)

[환율]

	'20.12.31	'21.12.31	'22.10.31	'22.11.25	'22.11.28	'22.11.29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424.30	1,323.70	1,340.20	1,326.60	-1.01%	+11.59%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424.90	1,324.30	1,340.20	1,326.40	-1.03%	+11.46%
₩/CNY	166.04	186.51	194.31	186.88	186.39	185.71	-0.36%	-0.43%
₩/Y100	1,051.19	1,032.48	963.19	954.77	968.84	956.87	-1.24%	-7.32%
Y/U\$	103.34	115.14	147.77	138.64	138.33	138.64	+0.22%	+20.41%
U\$/EUR	1,2279	1,1318	0,9941	1,0408	1,0360	1,0378	+0.17%	-8.31%
CNY/U\$	6.5305	6.3681	7.2800	7.1635	7.2016	7.1658	-0.50%	+12.53%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1.28 (전일)	'22.11.29				
					전일(11.28)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76.68	80.96	▲4.3 +5.6%	▲30.9 +61.8%	▲3.8 +5.0%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8.90	101.25	▲2.3 +2.4%	▲14.0 +16.0%	▼19.5 -16.1%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966.00	8,035.50	▲69.5 +0.9%	▲280.0 +3.6%	▼1,656.5 -17.1%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315.50	2,341.50	▲26.0 +1.1%	▲390.0 +20.0%	▼464.5 -16.6%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5,250.00	26,255.00	▲1,005.0 +4.0%	▲10,348.0 +65.1%	▲5,330.0 +25.5%

[반도체]

	'20	'21	'22.8	'22.9	'22.10	11.24	11.25	11.28	11월(~2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2.76	2.51	2.41	2.12	2.11	2.11	2.1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4.0%	-32.7%	-32.4%	-34.1%	-34.4%	-34.7%	-33.0%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57	6.57	6.57	6.52	6.51	6.51	6.53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4.2%	-5.4%	-9.6%	-11.5%	-11.6%	-11.6%	-11.2%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1.7	'22.11.11	'22.11.18	'22.11.25	전주(11.18)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1579.21	1443.29	1306.84	1229.90	-5.9%	-75.6%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9.30	'22.10.31	'22.11.23	'22.11.24	'22.11.25	전일(11.24)비	'21년말비
BDI	2217	1760	1463	1184	1242	1324	+6.6%	-40.3%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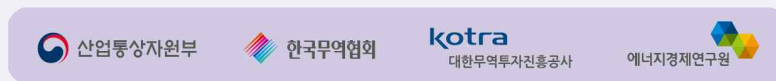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하단 URL 또는 QR코드로 접속하여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제작기관



협력기관

